매일묵상일기

가정예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예배자료

말씀의 기근, 하나님의 침묵

2026년 11월 17일(화)

● **찬송** ..... **(179장)** ..... **다함께**

● **기도** ..... **가족 중에서**

● **성경** ..... **(암8:11-9:6)** ..... **다함께**

>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암 9:11)

● **묵상자료** ..... **인도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고도의 번영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약786-746 B.C)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보면 긍정적 평가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정치력만큼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국력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고, 영토도 한껏 확장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서 강력한 위협이 되었던 아람은 점차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될 앗수르는 아직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부 격차가 극심해졌고, 탐욕이 일상이 되었으며, 약자들의 형편은 더욱 곤고해졌습니다. 부유층들은 안일했고,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니 사람들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정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지요. 1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기근과 기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심판의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 같은 데 뭔가 허전하고, 물을 마시지만 목이 마른 심각한 상황, 그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찬송가 384절 후렴구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저절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고, 우리의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갈증이 나고 있으며,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 **기도** ..... **인도자**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이 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 **다함께**